



배우 정우성(왼쪽부터), 윤여정, 전도연, 신현빈, 정가람이 13일 오전 열린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가방 앞에서 짐승이 되는 인간 군상 그려

“하나의 돈 가방을 각기 다양한 사연과 욕망으로 쫓는 여러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연·정우성·윤여정·배성우 등의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대해 출연 배우들은 이같이 설명했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평범한 인간들이 돈 가방 앞에서 짐승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린다.

13일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전도연은 “편한 범죄극이 아닌, 극적인 구성과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이 신선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함께 호흡을 맞춘 정우성도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온다”며 “배우들이 영화를 해석하는 방식도 각기 달랐다”고 말했다.

전도연은 과거를 지우고 새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연희를 연기했다. 연희는 돈 가방을 차지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린다. 정우성이 맡은 태영은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남긴 채 사라져버린 애인 때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다음 달 12일 개봉

정우성·전도연 영화서 첫 연기 호흡 ‘짧지만 강렬’

윤여정·배성우·정만식·진경·신현빈·정가람 출연

문에 마지막 한방을 계획하는 향만 공무원이다. 두 사람은 이번 영화로 처음 연기 호흡을 맞췄다.

“센 캐릭터라 힘 빼고 자연스럽게 연기하려고 했어요. 태영이 아는 연희와 모르는 연희가 서로 다른데, 태영이 아는 연희는 사랑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참피했어. (웃음) 우성 씨와 이전에 함께 연기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아서 적응하자마자 끝이 났는데 더 오래 연기하고 싶은 생각이예요.”(전도연)

“그동안 전도연씨와 함께 작품 했을 법했는데, 왜 못했을까 생각이 들었죠. 짧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태영은 때 묻은 강아지이지만 자신이 마치 밀린

의 사자인 양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인물이에요.”(정우성)

배성우는 사업 실패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만을, 윤여정은 중만의 어머니인 순자를 연기했다.

윤여정은 “전도연의 제안으로 영화에 합류했다”고 강조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피 나오는 영화를 싫어하는데, 이 영화는 좀 달랐어요. 전도연이 전화 걸어서 제가 해야 한다고 해서 중요하고 큰 역할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나와요. (웃음)”

이날 윤여정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좌중에 웃음을 선사했다.

“저는 나이는 많은데, 연기가 나이 많을수록 잘하는 거면 참 좋겠어요. 신인의

그 생생한 느낌은 이제 없어졌죠. 전도연의 연기는, 칸에서 상 타고 그런 배우인데 연기가 이상하다고 하면 제가 ‘또라이’ 아니에요? (웃음)”

이 밖에도 정만식과 진경과 신인배우인 신현빈, 정가람 등이 출연한다.

불법체류자인 진태를 연기한 정가람은 선배 배우들과 함께 작업한 소감을 “(선배들이) ‘땀땀’하시니까 폼에서 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표현했다.

일본 작가 소네 케이스케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연출을 맡은 김용훈 감독은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이다.

김 감독은 “원작이 소설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영화적으로 바꾸는 것이 관건이었다”며 “캐릭터들도 더 평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달리기 같은 영화”라며 “각 인물이 배턴 터치하듯이 전개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2일 개봉. /연합뉴스

‘SKY 캐슬’ 2020 아시안텔레비전어워즈 작품상



JTBC 드라마 ‘SKY 캐슬’ (사진)이 지난해 아시아에서 가장 사랑받은 드라마로 선정됐다.

JTBC는 지난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즈’ (Asian Television Awards, 이하 ATA)에서 ‘SKY 캐슬’이 드라마 작품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JTBC는 지난해에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같은 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수상자로 나선 김지연 CP는 수상소감에서 “‘SKY 캐슬’을 집필한 유원미 작가가 ‘입시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를 한 명이라도 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시청자가 ‘SKY 캐슬’을 보았으면 했는데 아시아 전역의 시청자들로부터 인정받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SKY 캐슬’은 입시 경쟁 등 명문가의 처절한 욕망을 그린 풍자극으로 방영 당시 24.6%(닐스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1996년 시작한 ATA는 ‘아시아의 에미상’으로 불린다. 매년 약 60명 심사위원이 엄격한 과정을 거쳐 수상자와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은 전 세계 방송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최우수상 시상식은 22개국 2억명을 대상으로 생중계됐다. /연합뉴스

이덕화, ‘나는 트로트 가수다’ MC 맡아



MBC에브리원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나는 트로트 가수다’ MC로 이덕화가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다음 달 처음 방송될 ‘나는 트로트 가수다’는 과거 MBC TV에서 흥행한 ‘나는 가수다’ 포맷을 차용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다.

이덕화는 MBC TV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진행 이후 30년 만에 MC를 맡게

된 데 대해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기도 하다.

트로트가 가진 힘, 제대로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그램에는 조광조, 김용임, 금잔디, 박구윤, 박혜신, 조정민, 박서진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0 좋은 아침
[10]	00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40 지구촌 뉴스		00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1]	30 야생여정(재)	0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재)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육탄탈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0 포구만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고향견문록 스페셜-시작인여행 50 특목 보험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빠샤 메카S 50 뽀뽀모 두모두 놀자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나쁜사랑(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유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환상의 타이밍 다시보기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볼24 55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	55 특별기획 농업이 미래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편애중계	40 낭만닥터 김사부
[10]	00 신년기획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11]	35 UHD 숨터 40 바다 건너 사랑	2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	10 PD수첩	0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특선영화 울지마 톤스(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영상앨범 선(재)	05 100분 토론	20 나이트 라인 50 2020 로잔 유스올림픽 하이라이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마사와 곰(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꾸러기 천사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8:30 최고대 호기심 딱지
07:45 페파 피그	14:45 몰랑	19:00 스파이더맨
08:00 똥똥똥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5:10 로보카 폴리(재)	20:00 마틸다사
08: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엄마 까투리	15:55 엄마 까투리(재)	<땅 끝 사람들 시아-북극의 별 아발>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밤상 위의 겨울 2부 대게가 되게 맛있네>
10:30 한국기행	16:40 똥똥똥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EBS 다크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건축탐구 - 집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4일 (음 12월 20일 丙辰)

<p>36년생 추진하되 무리해서는 아니 된다. 48년생 놔두면 다 쓰일 데가 있을 것이다. 60년생 새로운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 72년생 가볍게 여겨왔던 것 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84년생 깔끔하게 처리 될 것이니 마음 폭 놓아도 된다. 96년생 집착하다보면 지나치게 민감해질 수도 있으니 마음을 비우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87, 66</p>	<p>42년생 많은 의문을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니라. 54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니라. 66년생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양상이다. 78년생 큰 문제는 없으나 획기적인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 90년생 강함과 유연함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라. 02년생 노력에 비해 대가가 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0, 90</p>
<p>37년생 잔술밭에서 비늘을 찾고 있는 형국이나. 49년생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우선이나. 61년생 드디어 확실하게 곡면을 전환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73년생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겠. 85년생 주관이 분명하다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97년생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무리가 있으니 경험자나 전문가와 함께하라. 행운의 숫자 : 46, 83</p>	<p>31년생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단계이니 하나하나 심사숙고 하라. 43년생 단독으로 처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 55년생 잡다한 걱정과 핵심 현안에 집중하라. 67년생 특별한 신경 써야겠다. 79년생 관점의 한계가 파격적인 기회의 수용을 저해할 수 있다. 91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미흡하다. 행운의 숫자 : 62, 23</p>
<p>38년생 시시각각 변하니 진중한 판단이 요구 된다. 50년생 상대의 속셈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2년생 우연함이나 누락된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74년생 환경의 변화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 86년생 학습고대 해왔던 바가 성사 되리라. 98년생 가닥부터 잡아나가는 것이 실효적이다. 행운의 숫자 : 82, 41</p>	<p>32년생 기준점을 넘어서면 부족함만 못하다. 44년생 원래의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56년생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내야 면하다. 68년생 최선을 다해야 불어야 가닥이 잡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24</p>
<p>39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51년생 오히려 인한 시비가 보인다. 63년생 아는 길도 물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75년생 취소되거나 연기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87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선회하는 것이 유리하다. 99년생 그런대로 체면을 유지할 정도는 되겠다. 행운의 숫자 : 09, 81</p>	<p>33년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45년생 믿음을 제쳐두고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분명하니 잊지 말고 처리하라. 57년생 흑백 논리로 따질 일이 아님을 알아. 69년생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다. 81년생 기회가 밝게 빛나리라. 93년생 거침없이 밀어붙여야 가닥이 잡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8, 82</p>
<p>40년생 관찮은 운세이니 강구해도 될 것이니라. 52년생 결과는 대동소이 할 것이니 형편에 따라라. 64년생 지나치다 면 폐단을 머금게 되리라. 76년생 실제보다 훨씬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88년생 준비 한다면 능히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00년생 괴롭고 수고로운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12, 60</p>	<p>34년생 원한다면 취할 가능성이 높다. 46년생 해묵은 일이 가닥이 잡힌다. 58년생 투명성을 확보하라. 70년생 이루어지 못하는 아쉬움이 보인다. 82년생 정황을 정리하고 과감하게 선회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94년생 객관적이야하면 어느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4, 40</p>
<p>41년생 먼 곳으로부터 오는 희소식을 접하라. 53년생 풍부한 식견과 다각적인 고찰이 절실하다. 65년생 매우 어색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겠다. 77년생 분위기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89년생 자기당락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01년생 행운의 탄성이 울려 퍼지리라. 행운의 숫자 : 52, 37</p>	<p>35년생 관련 된다면 점점 부담스러운 일들이 속출할 것이니 즉시 철회하는 것이 낫다. 47년생 절제한다면 성숙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59년생 알고도 속아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71년생 체계적이야한다. 83년생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95년생 바람의 흔들림으로 알고 가볍게 넘겨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1, 26</p>